



전문예술극단 예인방의 '못생긴 당신'이 오는 25일 영광(오후 3시 문화예술전당), 30·31일 화순(오후3시 화순하니움문화스튜디오)에서 릴레이 공연을 펼친다. <예인방 제공>



대동춤 공연장면.

<ACC 제공>

형클어진 가족들, 제자리로 돌아오다

생선 장수 아내와 난봉꾼 남편의 일상은 전쟁이다. 돈만 밝히는 덕자, 카페 주인과 바람을 피우며 일확천금을 노리는 오철, 딸 해인은 곱든다. 한마디로 가족은 형클어진 대로 형클어진 상태다. 그러던 중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진다. 덕자가 암에 걸려 시한부 판정을 받게 된 것. 이들 앞에 불어닥친 폭풍우로 인해 가족은 제자리로 돌아온다. 마치 밀려났다 원 위치로 돌아오는 그네처럼. 병마의 고통을 이기지 못한 덕자의 몸부림에 오철은 모종의 계획을 실행하는데...

지난 2020년 대한민국연극대상 베스트작품상을 수상한 화제작 '못생긴 당신'은 가족애를 그린 작품이다. 전문예술극단 예인방의 '못생긴 당신'이 지역 순회 공연을 통해 관객몰이에 나선다. 25일 영광(오후 3시 문화예술전당), 30·31일 화순(오후3시 화순하니움문화스튜디오).

이번 공연은 전남도와 지자체들이 참여 '농어촌 문화향유를 위한 찾아가는 문화공연'의 취지를 담고 있다. 원거리 관객에게는 교통편도 제공할 방침이어서 지역간 문화격차 해소라는 사업취지를 수행한다는 복안이다.

전문예술극단 예인방 '못생긴 당신'
대한민국연극대상 베스트작품상
25일 영광, 30·31일 화순서 공연
농어촌 문화향유 찾아가는 공연 취지

이번 작품은 출연진도 화려하다. 전남연극제 연기대상 16회 수상에 빛나는 임은희 씨(덕자 역), 백상예술상·동아연극상 수상자 이승호 씨(오철 역)가 출연한다. 또한 탤런트 문희원 씨(조사장 역)를 비롯해 한국 뮤지컬 배우주연상 수상자 이인철 씨(무라카와 쓰지마 역), 국립극단 출신 김용선 씨(조마담 역) 등이 무대를 누닌다.

특히 드라마 '야인시대'에서 부통령 이기붕 역을 맡아 열연했던 이인철 씨는 3년 전부터 예인방 상임단원으로 활약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지난해 작품에는 시청자들이 익숙한 김호영씨와 홍순창씨 등이 무대를 빛낸 바 있다.

예인방은 지난 2019년 첫 공연 이후 지난해까지 연인원 2만 여 명의 관람을 계기로 '좋은 연극'의 확산을 위해 매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공연에서 검사 역을 맡은 예인방 김진호 이사는 "못생긴 당신'은 항도적 서정을 바탕으로 한 가족사로 많은 이들이 공감할 수 있는 차별화된 콘텐트"라며 "앞으로는 가족체로 야기된 현대인의 고독에 주목하는 작품들로 관객들과 만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전통 춤과 연대의 몸짓 '대동 한마당'

ACC, 전통예술공연 '대동춤Ⅲ' ...27일 예술극장 극장1

검무, 문동북춤, 일무로 아우러지는 대동 한마당. 오월 정신과 자유, 평화의 메시지를 전통 춤과 연대의 몸짓으로 전하는 무대가 펼쳐진다. 특히 이번 무대는 수어 통역도 곁들여져 눈길을 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전당장 이강현)이 오는 27일(오후 5시) ACC 예술극장 극장1에서 '2023 전통예술공연 대동춤Ⅲ'을 선보인다.

전통예술춤 관계자는 "대동춤Ⅲ'은 민주와 인권, 평화 가치를 토대로 전통예술의 품을 확장한 대중적인 무대"라며 "이번 무대도 민중의 아픔을 넘어 격변의 역사를 예술적으로 승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3부로 구성돼 있다. 제1부 검무는 김(劍)을 소재로 펼쳐진다. 같은 전쟁을 의미하지만 검무는 치유를 상징한다. 두 사람의 몸짓은 춤이 되기보다 죽음을 향한 칼인데 죽음의 문턱 앞에 등장한 사인이 두 사람의 칼을 쥐는 순간 칼의 의미는 변한다.

차별과 아픔 없는 세상을 그린 부분도 있다. 제2부 화양연화(탈춤)는 문동춤과 봉산탈춤을 모티브로 민초들이 문동에게 희망의 세상이 있음을 알려준다.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어갈 때 인권의 꽃은 피기 마련이라는 메시지를 선사한다.

제3부 타파일무는 종묘제례악의 의식무 일부(尙舞)를 현대적으로 해석했다. 제례악에 맞춰 추는 일무의 일(尙)은 열(列)과 같은 뜻으로 춤을 지어서 춤을 춘다는 의미다. '타파'에서는 일무의 오와 열, 동작의 정형을 무너뜨려 나가는 것으로 변할 수 없는 것을 향한 타파(打破)의 춤을 말한다. 일련의 과정은 새롭게 만들어 나갈 시대정신을 사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강현 전당장은 "이번 '전통예술공연 대동춤Ⅲ'은 열흘간의 오월 향정의 역사가 남겨지고 민주주의가 움뉘던 마지막 날 펼쳐지는 데 의미가 있다"며 "오월 정신을 함께 생각해 보는 위로와 치유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옛 전남도청 원형복원! 어떻게 되어나?'

시민연대, 25일 광주NGO센터 시민마루서 이야기마당 개최

옛 전남도청 원형 복원과 관련한 첫 공론의 장이 마련됐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활성화시민연대(시민연대)는 오는 25일(오후3시) 광주NGO센터 시민마루(전일빌딩245 4층)에서 이야기마당을 개최한다.

'옛 전남도청 원형복원! 어떻게 되어나?'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시민연대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지원포럼(지원포럼)이 공동 주최한다.

이번 포럼은 옛 전남도청 복원사업 추진 사항 및 공간별 전시컨텐츠 구획 기본원칙과 방향을 공유하고 시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는 데 있다.

포럼은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이기훈 상임이사의 사회로 진행되며 박영만 옛 전남도청 원형복원추진단 학예연구관이 '전시컨텐츠 사업을 중심으로 사업규모와 복원대상 건물, 기본방향 및 추진상황, 향후 계획' 등을 중심으로 주제 발표를 한다. 김기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담양 독수정' 梅

자연 속 대담미술관서 '담양의 사계' 느껴요

연말까지 대나무 모티브 프로그램 운영... '덧잎차' '대나무 집' 등

'대나무'는 담양의 대표 특산물이다. 다양한 공예 재료뿐 아니라 문화 콘텐츠의 소재로 활용돼왔다. 지역 특산물인 대나무를 모티브로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대담미술관은 오는 12월 2일까지 모두 8회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일명 '동네방네 미술관: 대나무와 함께하는 담양의 사계'.

이번 프로그램은 2023년 미술관 문화가 있는 날 기획으로 진행되며 대나무를 주제로 행사와 체험 위주로 꾸려진다. 장소는 대담미술관 내·외부.

오는 6월 3일은 자연 속 미술관에서 다도를 통해 예법을 익히고 담양을 대표하는 덧잎차와 죽녹차 시음을 통해 차의 효능을 이해하는 '담양의 봄: 덧잎차'가 마련됐다.

6월 29·30일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대나무를 주제로 자연의 집을 만들어보는 건축체험 교실 '담양의 여름: 시원한 나만의 대나무 집 I II'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미술관은 지난 4월 29일 1회 차 프로그램



지난 4월에 열린 행사 모습. <대담미술관 제공>

을 진행한 바 있다. 미술관 문화가 있는 날은 오는 9월 2일, 9월 30일, 10월 28일, 12월 2일도 펼쳐진다.

참여대상은 초·중·고등학생, 성인이며 희망자는 대담미술관 메일 접수 또는 전화(061-381-0082)로 하면 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서구문화원 '문화유산' 아카데미

광주서구문화원이 '인물로 보는 광주 문화유산' 아카데미를 마련했다. 5월부터 오는 11월(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 서구문화원 강의실)까지 진행되는 이번 특강은 '우리 지역의 사람책을 읽는' 시간이다.

특히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역의 인적 문화유산을 알고 계승, 발전시키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에 앞서 지난 22일에는 흥인화 5·18민주화운동기록관장이 '광주 5·18관련 인물'이라는 주제로 당시 사망한 피해자와 살아남은 자들의 삶과 죽음, 그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강론했다.

문화유산아카데미는 이어, 6월 변길현 광주시립미술관 학예연구실장의 '광주 현대미술-제14회 광주비엔날레 '물처럼 부드럽고 여기'를 비롯해 7월 김재기 전남대 교수의 '나라 밖에서 나라 찾는 광주출신 코리안스포르 독립운동가', 8월 최혁 전 남도일보 주필의 '광주의 동학 인물과 유적지'가 진행됐다.

이어 9월 김종 전 광주문인협회 회장의 '용아 박용철 돌아보기', 10월 신봉수 역사교사의 '불굴의 한말 호남 의병', 11월 이동순 조선대 교수의 '아름다운 동행, 최원순과 현덕신' 등이 펼쳐질 예정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황순철의 古梅展을 위한 음악회'

25일 황순철 갤러리...정찬경 초대 '가고파' 등 연주

황순철 화가는 매화에는 등급이 없다고 본다. 누군가 호남의 5대(梅)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는 무등산이 등급이 없는 산이라는 의미처럼, 매화 또한 그렇다고 본다. 호남의 5대 매라고 부르는 것을 지양하는 의미다. 모든 매화는 아름답고 격이 있다는 뜻일 것이다.

제 17회 황순철의 古梅展을 위한 음악회가 열린다. 오는 25일 오후 6시 황순철 갤러리.

지난해 연말 송년음악회를 가졌던 황 작가가 올하는 매화전을 결연인 음악회를 개최한다. 연주자는 연세대 성악과를 졸업하고 이탈리아 Viotti 국립음악원 오페라를 졸업한 정찬경이 초대됐다. 연주 곡목은 '가고파', '추억', '그대 창밖에서' 등을 연주할 예정이다.

황 화가는 지난 2005년 피아노치는 딸아

이를 위해 음악회를 처음 연 이후 1년에 두 세 차례 화실을 벗어나 시민회관 소극장과 유스퀘어 문화관 음악홀에서 매년 송년음악회를 연 바 있다.(2020-2022년 코로나 기간에는 씬)

매화를 그리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12년부터다. 배꽃 작업 이후 시작된 매화 작업은 광주 전남과 전국을 다니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현장에서 직접 작품을 그리는데 발이나 언덕의 야매(野梅)에서부터 전국의 유명 매화까지 다양하다.

한편 황 작가는 "초창기부터 지난 2019년까지는 딸 아이를 위한 음악회였다면 올해 음악회는 매화전과 함께하는 황순철 예술을 위한 음악회"라며 "이번은 매화와 함께하는 격조와 의미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